

한국의 다문화 연구 현황과 과제*

박 경 하**

목차

머리말

I. 다문화 諸개념과 한국의 연구 현황

1. 다문화 諸개념과 정책 유형
2. 한국의 다문화 연구 현황

II. 한국의 다문화 연구와 향후 과제

1. 다문화 연구의 향후 과제
2. 다문화 교육의 향후 과제

맺음말

머리말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를 극복하는 이론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413-A00013).

**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2007년부터 진행된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의 1단계 연구책임자로 있었다.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로 지정되어 2단계의 주제인 「소통과 공존을 위한 다문화 인문학 정립과 다문화콘텐츠 연구 개발」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 정책은 동화주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측면에서 그 접근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정책이 국가의 성격, 구성원, 특징 등에 따라 상이한 정책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적응력, 실천력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¹⁾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의 신화’에 몰입되어 있었으며,²⁾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학계와 교육계 및 사회단체 등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의 각 분야에서 문화 접촉과 융합에 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특히 다문화 연구와 관련한 전문학술지의 지속적인 발간이라든가, 다문화주의를 주제로 하여 진행되는 전국학술대회는 한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담론과 반성적 성찰이라는 의미에서 더욱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연구 성과의 축적은 학계의 상당한 기대를 받고 있다.

문학 분야에서는 비교문학연구, 문화연구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 패러다임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행해졌다.³⁾ 이와 함께 다문화 현상에 대한 한국문학 진영 전반의 함의된 개념의 부재를 지적하면서도, 국문학의 학문체계가 지닌 단일성으로 인한 다양성에 대한 무관심을 반성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⁴⁾ 또한 최근 영미문학연구회 등을 주

-
- 1) 구건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가을호, 2003, 3쪽.
 - 2) 이러한 경향은 특히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사회교과서와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시대 상황과 맞물려 단일민족사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던 점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 3) 이명현, 『타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語文論集』40, 중앙어문학회, 2009; 『영화 <구미호 가족>에 재현된 구미호와 주체와 타자의 문제』, 『다문화콘텐츠연구』 10집,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1, 4; 『다문화시대 이물교혼담의 해석과 스토리텔링의 방향』, 『다문화주의의 담론과 성찰』, 전국학술대회 자료집(2011, 5, 13), 중앙대학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49-65쪽.
 - 4) 강진구, 『한국문학의 쟁점들-탈식민, 역사, 디아스포라, 제이앤씨』, 2007; 『다문화교육이 대학생들의 다문화인식에 끼친 영향』, 『다문화연구』창간호, 중앙대학

축으로 이루어지는 영문학 작품들에 대한 기존의 번역을 점검하는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서구의 다문화사회 진행과정에서 드러나는 사회구조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여 검토한 연구 등은 주목할 만하다.⁵⁾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사회에 직면한 우리의 현실을 재검토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역사학 분야에서도 강대국에 둘러싸여 개방을 경험했던 한민족의 과거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있고, 특히 전근대사의 각 단계에서 나타났던 교류와 교역을 통한 문화의 전파와 정착과정을 밝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⁶⁾ 이들 연구들은 ‘다문화’라는 특정 주제에 선별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지만, 역사 전개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끼쳐왔던 다양한 문화상의 재현이라는 연구에 집중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최근에는 ‘탈 민족’, ‘탈 경계’적인 시각으로 민족주의 역사관에 대한 비판도 이루어지고 있다.⁷⁾

교, 2008; 『수기(手記)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혼혈인 인식』, 『우리文學研究』26, 우리문학회, 2009; 『다문화 시대와 한국문학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4(통권 9),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하반기, 24쪽; 류찬열, 『다문화시대와 현대사의 새로운 가능성』, 『국제어문』44, 2008; 『다문화 동화의 현황과 전망』, 『語文論集』40, 중앙어문학회, 2009.

- 5) 이산호, 『프랑스의 문화다양성과 사회통합정책』, 『다문화연구』창간호, 중앙대학교, 2008. 박재영, 『유럽 다문화사회의 문화충돌』, 같은 책; 김휘택, 『다문화시대의 사회 계층 구조 변화』, 『다문화콘텐츠연구』4(통권 9),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하반기, 137-162쪽; 최혜양, 『캐나다의 이민과 다문화주의 이해』, 같은 책, 209-239쪽.
- 6) 전영준, 『신라사회에 유입된 서역문물과 多文化的 요소의 검토』, 『신라사학보』15, 신라사학회, 2009; 『고려시대 팔관회의 실행과 국제문화교류』, 『다문화콘텐츠연구』3(통권 8),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현행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고·중세시기 문화교류 내용 서술과 분석』, 『동국사학』48, 동국사학회, 2010; 『11~12세기 전후 麗·宋 양국의 문화인식과 『高麗圖經』』, 『다문화콘텐츠연구』10집, 2011.
- 7) 박용희 외, 『다민족·다인종 국가의 역사인식』, 동북아역사재단, 2009 참조. 이외에도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역사에서 드러나는 갈등과 공존의 주제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기획물을 발간하고 있다.

철학 분야에서는 문화철학이라는 분과가 독립되어 있어 지속적이고 일관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타자와 관련하여 갈등을 다루는 이론으로 구체화되어 실천철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⁸⁾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정치학·행정학·사회학 등을 중심으로 민족갈등, 통합모델 및 세계화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⁹⁾ 법학 분야에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여 인권평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¹⁰⁾

이처럼 학계의 각 분야에서 진척되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는 주로 사회정책이나 법률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로 서양에

-
- 8) 최성환,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전망』, 『철학탐구』24, 중앙철학연구소, 2008; 『다문화주의와 인권의 문제-문화상대주의와 보편주의의 경계에서』, 『다문화주의의 담론과 성찰』, 전국학술대회 자료집(2011, 5, 13), 중앙대학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17-47쪽.
 - 9)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 출판부, 2005; 윤인진·이진복,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북한 이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7-1, 2006; 『북한 이주민의 건강과 경제적응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21, 2007; 『다문화사회에서 사회적 성원권의 再정의-민족, 국민, 주민 개념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의 담론과 성찰』, 전국학술대회 자료집(2011, 5, 13), 중앙대학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1-16쪽; 김영란, 『다문화 사회복지실천의 한국적 함의』, 『다문화콘텐츠연구』 4(통권 9),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하반기, 29-65쪽; 이호경,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같은 책, 187-207쪽; 홍기원, 『다문화현상에 대한 행정적 대응의 변화과정과 그 함축』, 『다문화주의의 담론과 성찰』, 전국학술대회 자료집(2011, 5, 13), 중앙대학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107-131쪽.
 - 10) 이성언, 『법제지원방안 연구 다문화 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법제연구원, 2006; 이순태,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박명선, 『독일 이민법과 통합정책의 외국인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41-2, 2007; 이종윤, 『한국의 다문화정책 관련법에 관한 일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4(통권 9),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하반기, 163-185쪽.

서 생성된 이론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생산하여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적인 논의는 사회학과 정치학의 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문화에 대한 연구의 지평이 확대되면서 인문학의 범주에서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문학적 접근은 한국사상의 전통사회 형성과 발전이라는 큰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한국 학계의 다문화 연구 현황을 인문학적인 접근 방법의 패러다임으로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한 조심스러운 제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 ‘다문화’의 諸개념과 한국의 연구 현황

넓은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적 상황 그 자체를 기술하는 용어이나, 좀 더 좁은 의미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인종, 사회경제적 계급, 성별, 언어, 문화, 성적 성향, 신체적 장애 등)에 대하여 각각의 개인과 집단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며, 어떠한 사회·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를 분석하려는 비평 사조라고 할 수 있다.¹¹⁾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함께 담고 있는 용어라는 점에서 매우 유동적이고 광범위한 해석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결과의 원론적인 수용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의 다문화 연구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이론적 연구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겠다.

11) 이귀우, 『비판적 다문화주의와 문학연구』, 『인문논총』6, 2002.

물론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이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탐구는 아직 부족하지만, 이 또한 학계에서 집중적인 조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¹²⁾

1. 다문화 諸개념과 정책 유형

다문화주의는 1960년대 말 서구의 시민권운동을 기폭제로 1970년대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의 전형적인 다인종 국가들에서 활발한 논쟁이 개시됨으로써 공론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¹³⁾

그것은 하나의 사회 내부에 복수문화의 공존을 인정하고 문화의 공존이 유발하는 긍정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문화주의를 말한다. 곧 다문화주의는 같은 사회 공간 내에서 복수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준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문화 간의 우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문화나 소수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측면이 강하다. 더욱이 다문화주의는 문화 간의 격차와 이질성에 의해서 무시되거나 차별되는 것을 전략적으로 방지하고

12) 최근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다문화연구』(창간호, 2008, 12.)라는 학술지가 발간되었다. 여기에 실린 주요 논문은 이상호, 『프랑스의 문화다양성과 사회통합정책』; 이길용, 『일본어 언어문화의 다양성 인지와 실현』; 강진구, 『다문화교육이 대학생들의 다문화인식에 끼친 영향』; 윤재희·유향신, 『한 걸음 더 나아가기-영·유아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박재영, 『유럽 다문화사회의 문화충돌』; 김휘택, 『롤랑 바르트의 사상적 여정과 다문화』 등이며, 또 최성환,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전망』, 『철학탐구』24, 중앙철학연구소, 2008; 류찬열, 『다문화시대와 현대시의 새로운 가능성』, 『국제어문』44, 2008; 류찬열, 『다문화 동화의 현황과 전망』, 『語文論集』40, 중앙어문학회, 2009; 강진구, 『수기(手記)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혼혈인 인식』, 『우리文學研究』26, 우리문화회, 2009; 이명현, 『타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語文論集』40, 중앙어문학회, 2009; 전영준, 『신라사회에 유입된 서역문물과 多文化的 요소의 검토』, 『신라사학보』15, 신라사학회, 2009 등의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학계에 발표되고 있다.

13) 이상길·안지현,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한국언론학보』51-5, 2007, 62-63쪽.

문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¹⁴⁾

본래 다문화주의는 다음 네 가지 양상 가운데 하나 또는 둘 이상이 섞여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먼저, 다문화주의는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학문적 담론의제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민족과 국가가 일치하는 국민국가 개념을 고수하는 나라들은 그 나라에 유입된 소수인종들에게 고유문화를 포기하고 다수문화에 동화되도록 강요한다. 다문화 주의는 이러한 동화론에 반발해 이민자로나 소수민족들이 자신의 고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세 번째는, 사회운동적 측면이다. 시민들의 권리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민자나 소수인종 그룹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자신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2~3세기 동안 다양한 소수자 그룹들이 다문화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경우들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소수자 정책(이민자, 소수인종, 난민 정책)을 폭넓게 가리킨다.¹⁵⁾

그러나 현실에서 부딪히는 다문화주의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반응의 유형은 보수적 다문화주의이다. 이 다문화주의는 실제로는 단문화주의(monoculturalism)로서 신식민주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서구 가부장제 문화의 우월성을 신봉하면서도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의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두 번째 유형의 반응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이다. 보수적 다문화주의와는 달리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유색인들이나 빈곤층을 백인 중·상층에 비해 열등하다고 보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인권과 인간

14) 구건서, 앞의 글, 2003, 30쪽.

15)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2007, 57-58쪽.

성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유형은 다원주의적 다문화주의이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다원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차이를 강조한다. 그러나 양자가 모두 탈정치적이며 백인 유럽중심주의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네 번째 유형은 본질주의적 다문화주의이다. 보수적 다문화주의가 우파 경향이 있는 것에 반해 본질적 다문화주의는 피억압 계층이 억압계층 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좌파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주의 유형화는 비판적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전개된 것이다.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보수적·자유주의적·다원주의적·본질주의적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등과 정의의 관계를 억누르는 억압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도모하며, 다문화적 상황에 바람직하게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를 극복하는 이론으로 등장하였지만, 모든 국가에게 있어 같은 의미와 특징을 갖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성격, 구성원, 특징 등에 따라 상이한 정책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수용력, 적응력, 실천력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와 국민국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다. 첫째는 국민국가의 결집성격에 따라 다문화주의의 동기와 정책이 다르다. 하나의 문화로 강력하게 결집된 국민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민국가에 있어서 다문화주의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둘째는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에서 다문화주의는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에 있어서 다문화주의는 바람직한 규범이며 실현해야 할 목표가 되어 적극적인 가치개념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유입되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제도적으로 또는 비제도적

16) 이귀우, 앞의 글, 59-66쪽.

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에 비해 발전도상국에서 인위적인 국경선, 복잡한 부족, 다양한 민족분포 등과 같은 다문화주의적 요소는 국민통합을 위한 목표나 규범으로 작용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부족 또는 민족 간의 경계를 만들고 구분하여 분열을 조장한다.

셋째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견해가 정부와 국민 간에 불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선진국에서 정부는 다문화주의를 국민이익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대내외적 정책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실천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다문화주의는 정부 수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는 통합정책의 ‘수단’이라는 성향이 강하다. 진정한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는 국가 구성원에게 기회 평등과 결과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차원에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지식인 집단과 민중 집단 사이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주의의 추진에 따라 복수 언어를 구사하는 지식인과 자국 언어만을 구사하는 민중 간에는 이익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지식인은 국제인으로 세계적(cosmopolitan)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획득할 수 있는 이익 때문에 다문화주의를 환영한다.

다섯째는 이념적으로 자국문화를 중시하는 單文化主義와 다문화주의 및 상이성에 대한 권리와 충돌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보기를 들면, 미국에서 다문화주의는 학술적인 용어이며 소수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미국이 단문화주의를 국가통합이나 국민통합의 원리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에서 나온 것이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도가니론(melting pot) 정책이다. 한편 프랑스에서 다문화주의가 ‘상이성에 대한 권리’(droit a la difference)로 주장되어 새로운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상이성에 대한 권리’는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것과 다른 소수의 것을 동등한 권리로 인식하는 것으로 국가나 정부가 추진하는 기존의 다문화주의보다도 적극적인 개념이다.

다문화주의의 목적은 다문화의 보장, 주류사회와 비주류사회 간의 상호이해 촉진, 소수민족 집단 간의 교류, 사회평등 보장, 구조적 불평과 차별 극복, 사회 통합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실천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주의는 기회 평등과 결과 평등을 통해서 소수민족 공동체와 다수민족 공동체의 고립화를 막고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이론으로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목적은 국가 수준, 사회공동체 수준, 개인 수준 등에서 광범한 이해와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정책으로 구체화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민족 등을 주장하는 동화주의에 기초한 국민국가 통합정책과는 대치되는 이념이다. 이것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국가적 관리 모델의 수립을 전제로 하는 공공 선언이다. 문화 다양성 속에서만이 개인과 집단의 인권과 자유권이 신장되고 창조적 에너지가 발휘되며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를 수 있다는 철학과 공공 규범을 확인하고 지속하는 것이다.¹⁷⁾ 따라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적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다문화화 정책이다. 이것은 문화의 다양화를 의미한다. 곧 다문화화 정책은 언어, 규범, 가치관, 종교, 이념, 생활양식, 법 등에 대한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문화 정책 중에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것은 우선 다언어교육정책과 다언어매체정책이다.

둘째는 다제도화 정책이다. 이것은 주류사회와 소수사회를 포함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개인, 조직, 사회,

17) 홍기원, 『다문화 사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下), 한국행정학회, 2007, 926쪽.

국가 등을 규정하는 규범, 법률 등을 말한다. 즉, 가족제도, 가족구성 규범, 사회행위 규범, 법적 제재와 처벌 규정 등을 개인, 가족, 공동체, 지역사회, 국가사회 등의 차원에서 개방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다사회화 정책이다. 다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기회 평등과 결과 평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의미한다. 보기를 들면,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또한 제도를 통한 혜택도 동등하게 받도록 하는 정책이다. 또한 정치 영역에서 각종 선거권과 출마권을 동시에 인정하고, 삶의 기회균등 제공, 소수민족의 교육선택, 직업선택, 사회참가선택 등의 법적 보호,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부여와 제도적 장치, 각종 사회제도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정책이다.

넷째는 다평등화 정책이다. 이것은 소수민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주류사회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차별 해소정책과 역차별 해소정책이다. 문화, 제도, 사회화 등에서의 평등정책은 비주류사회가 주류사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류사회가 비주류사회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책이다. 만약 다문화정책이 이민, 난민, 외국인 노동자, 주변지역, 소수민족, 원주민 등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주류사회를 소외시킨다면 역차별정책이 된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하고 공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다문화화 정책, 다제도화 정책, 다사회화 정책, 다평등화 정책 등을 통해서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평등과 차별성을 없애는 공생공존정책이라는 특징이 있다.¹⁸⁾

정책적 유형은 다양하지만 다문화주의가 추구하는 공통 목표는

18) 구건서, 앞의 글, 31-48쪽.

다문화 사회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중되는 사회, 서로 다른 문화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고유성 속에서 인정받으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¹⁹⁾ 그러나 다문화주의를 일찍이 실천해왔던 나라들에서 더 이상 이 이념이 사회통합 원리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유일한 정치적 원리로 보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또한 다수(주류)의 관용(tolerance)에 기초하고 있는 이 방식이 근본적으로 권력관계를 해소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즉 다문화주의가 동질화하는 문화 개념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 등에서 태생적 한계가 있다.

2. 한국의 다문화 연구 현황

다문화에 대한 주제들을 살펴볼 때, 한국 학계의 연구 경향은 서양의 이론적 틀을 원용하여 한국 사회의 현실적 적용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 1970년대부터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분분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최근 들어 활발히 전개된 각 분야의 의견 개진과 다문화 담론에 대한 연구 성과 축적은 상당한 양의 연구 성과를 얻었다.

산술적이기는 하지만 ‘다문화’ 주제에 의한 검색 결과는 2010년까지 832건이며, 일부 중복되는 연구논문을 제외하고 미확인된 연구를 포함한다면 집계보다 많은 연구가 있을 것이다. 이전의 연구에서 집계되었던 성과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²⁰⁾ 이는 이론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연구의 관점에서 진전된 모습

19) 다문화콘텐츠연구소, 『다문화의 이해』, 경진출판사, 2009, 17쪽.

20) 전영준, 『한국의 다문화연구 현황』, 『다문화콘텐츠연구』 1(통권6), 문화콘텐츠

을 보이고 있다. 또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정체성 등의 관련 주제로 진행된 연구는 217건으로 집계된다.²¹⁾ 이와 함께 ‘새터민’ 주제에 의한 연구는 66건이며²²⁾, ‘이주민’ 연구는 237건, ‘diaspora’주제는 207건의 연구가 있고²³⁾ 이주노동자의 주제는 152건, ‘동화주의’ 주제는 53

기술연구원, 2009 상반기, 109-130쪽.

- 21) ‘다문화주의’ 주제의 검색 결과는 앞의 ‘다문화’연구 성과와 중복되는 수치이다. 본고에서는 가장 최근의 연구들을 소개하기 보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들이나, 필요한 연구 분야에 대한 언급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09~10년에 발표된 연구들이 모두 소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 22) 최근의 연구들로는곽정래·박승관, 「새터민의 매스미디어 이용과 사회적응」, 『한국언론학보』50-6, 2006; 박명선, 「독일 이민법과 통합정책의 외국인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41-2, 2007; 윤인진, 「북한 이주민의 건강과 경제적응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21, 2007; 윤인진·이진복,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 북한 이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7-1, 2006; 이찬 외, 「새터민의 기초직업능력 진단」,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39-3, 2007; 조용완, 「북한이탈주민의 정보 빈곤 해소를 위한 정보서비스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37-3, 2006; 조용완,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40-3, 한국문헌정보학회, 2006; 조용완, 「이주민을 위한 국내 도서관 서비스의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38-2, 2007; 조정민,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7차 고등학교 세계사교과서 내용 분석」, 『-역사교육』114, 2010; 이소연 외, 「초등학교1, 2학년 다문화가정 학생의 읽기 기초학력 검사 결과 및 문항 분석」, 『독서연구』23, 2010; 장진숙, 「다문화주의와 국민국가 통합정책 비교고찰」, 『공법학연구』11-3, 2010; 조윤주,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 『한국실과학회지』23-3, 2010; 홍지아, 『다인종 가정 재현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 『한국방송학보』24-5, 2010 등이 있다.
- 23)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연구들은 상당수에 이른다. 최근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확인된다. 강진구, 『한국문학의 쟁점들-탈식민·역사·디아스포라』, 제이앤씨, 2007; 공종구, 「강요된 디아스포라-손창섭의 『유맹』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2, 2006; 김경국 외, 「중국어이민민의 제 명칭 분석 연구」, 중국인문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2005; 김경학 외, 『귀환의 신화-해외 인도인의 이주와 정착』, 경인문화사, 2005; 김경학 외, 『인도인 디아스포라-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 경인문화사, 2006; 김경학 외, 『글로벌시대의 인도인 디아스포라』, 경인문화사, 2007; 김경학, 「인도인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 『문화역사지리』19-3, 2007; 김정현 외, 「러시아에서 고려인이 생산한 한글정보자원에 관한 연구 : 1900-1937」,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37-3, 2006; 박경환, 「디아스포라 주체의 비판적 위치성과 민족 서사의 해체」, 『문화역사지리』19-3,

건이다. 최근 베트남신부 사건 등으로 인해 집중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연구가 28건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증폭될 것으로 생각된다.²⁴⁾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도하는 연구가 있어 주목되고 있는데²⁵⁾, 최근의 연구 성과를 집약하면서도 그 중심은 사회복지적인 실천 방법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실질적으로 다문화주의 국가가 아닌 한국이 다문화주의 표방하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다문화주의의 정의를 첫째, 일반적으로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을 지칭하는 경우와 둘째, 학문적 담론의제로서의 다문화주의라는 시각과 셋째, 사회운동적 측면에서의 다문화주의 및 마지막으로 국가의 소수자정책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서구의 사례를 거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서구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를 좁게의 분류에 따라 실질적 다문화주의와 공식적 다문화주의로 분류하였다. 실질적 다문화주의는 전지구화로 인한 국가 구성원의 인종적 다양화 현상을 국가가 수동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이고, 공식적 다문화주

2007; 변화영, 『문화교육과 디아스포라』,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2, 2006; 변화영, 『제일한국인 유미리의 소설 연구』, 『한국문학논총』45, 2007; 오윤호, 『중국인 거리에 나타난 이주의 상상력』, 『어문연구』35-4, 2007; 이정원, 『오리엔탈리즘, 시오니즘, 테러리즘; 에드워드 사이드의 『팔레스타인 문제』』, 『비평과 이론』11-1, 2006;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국제성별분업, 국제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38-2, 2004; 이재봉, 『지역문학사 서술의 가능성과 방향』, 『국어국문학』44, 2006; 장사선, 『제일 한민족 문학에 나타난 내셔널리즘』, 『한국현대문학연구』21, 2007; 허석, 『해외이주 일본인들의 디아스포라적 특성에 대한 연구』, 『일본어문학』31, 2006 등이 있다.

24) 누리미디어에서 제공한 원문 파일의 검색 결과이다. 이외에 아직 확인되지 않는 연구 성과를 포함한다면, 본문에 제시된 내용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25)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한울, 2007.

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다문화주의 담론을 유용하며 다문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대표적 다문화주의 국가인 캐나다와 호주는 공식적 다문화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예이다.

캐나다와 호주와 같은 공식적 다문화주의 국가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이주민 그룹 간의 분열을 막고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공식적 다문화주의는 건국이념이 없는 이민국가에서 건국이념을 대신한 사회 통합의 이데올로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이 이들 나라의 다문화주의가 소수민족의 문화권리보다 '시민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더 강조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²⁶⁾

이에 반해 한국 정부가 이중적 잣대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수립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서 새로이 유입된 이주민들을 융합하고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사회 안정으로도 모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는 지적은 이런 점에서 의미 있다.²⁷⁾ 그렇다면 이민국가와는 역사·사회적 배경이 다른 한국에서 정부주도의 다문화주의 정책담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일까? 김희정의 연구는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한국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 추진 배경과 실제 정책을 분석하였다. 한국 정부가 다문화주의 정책을 주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사회가 현상적으로 다문화적 인구 구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다

26) 김희정,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한울, 2007. 58-64쪽.

27) 김희정, 앞의 글, 70-76쪽.

문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제 정책을 분석해보면 이중적인 잣대로 소수자들을 동화 혹은 배제시키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인도인의 집단 이주와 관련된 인류학적인 검토도 있어 주목되는데,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출간된 저서들이다.²⁸⁾ 이들에 의하면 인도인의 정주나 이민 등은 식민지 시절의 정책적 영향으로 인한 것이지만 역으로 귀환하는 경우도 있음을 들면서, 그로 인한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고 적응해가는 과정 또한 다문화주의의 사례로 검증하고 있다.²⁹⁾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은 국제이해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서 진행된 연구가 많았는데, 이는 초등학교 사회과 4학년 교과과정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해라는 교육과정이 편제되어 있음에 기인한다. 현재까지 다문화와 관련한 연구의 대부분은 교육정책이나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연구가 주를 이룬다.³⁰⁾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성과가 초등학교 과정에서 필요한 국제관계의 변화와 국제교육정책의 확대라는 사조에 부응하여 검토된 연구이며,³¹⁾ 중등과정의

28) 김경학 외, 앞의 책, 경인문화사, 2005, 2006, 2007참조.

29) 한국 사회에 대한 귀환 문제를 다룬 연구로는 黃善철(『해방 후 대만지역 한인 사회의 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34, 2005), 김승일(사할린 한인 미귀환 문제의 역사적 접근과 제언), 『한국근현대사연구』38, 2006) 등이 있으며, 이들 외에도 여러 전공자들의 연구 성과가 잇달아 발표되었다.

30) 지난 2009년 제52회 전국역사학대회의 역사교육부에서도 ‘다문화와 역사교육’을 주제로 연구발표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도 세계사 교육과 다문화를 주제로 하는 연구가 소개되고 있어서 최근 역사학계의 다문화 교육은 심화되거나, 구체화되는 증거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31) 염철현, 『미국의 적극적 차별수정정책(Affirmative Action)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16-4, 2006; 장덕호, 『최근의 국제 관계 변화와 국제교육정책 형성을 위한 담론』, 『비교교육연구』17-1, 2007; 김현덕, 『다문화교육과 국제 이해교육의 비교연구-미국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17-4, 2007; James A. Banks, 모경환 외 공역,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2008; 유네스

다문화교육도 사회과 교과에 나타난 세계사 학습과정 분야에서 일부 검토된 것이 모두이다.³²⁾

다행인 것은 2007년 제7차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단일민족주의 관점이 지양되고, 다문화와 인권 관련 내용이 강화되었다. 아울러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은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한다. 첫째, 개정교육과정의 다문화교육 시수의 감축 문제이다. 이로 인해 다문화사회의 진입 단계에서 학생의 교육내용 선택권 확보, 사회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와 흥미 수용 등에 대한 재량활동의 명분이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다문화교육의 초등교육 집중 문제이다. 그동안 다문화가정 자녀와 북한이탈주민자녀의 학교교육은 그나마 초등교육에 집중된 감이 있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도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다문화교육의 방향, 방법, 내용, 또는 다문화교육 관련 초등교사 교육 등 초등교육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그렇지만 주목할 부분은 그 자녀들이 점차 중등학교에 진학할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교육과 중등교육

코 아시아 편, 『맛있는 국제이해교육-다문화 시대의 음식과 세계화』, 일조각, 2007; 로버트 프로서, 『블루, 화이트, 레드: 다문화주의 프랑스』, 주니어 김영사, 2008 참조.

32) 이지영, 『다문화 교육을 통한 세계사학습의 현장사례연구』, 『사회과교육』41-3, 2002; 김선미, 『중등사회과교과에 나타난 한·중·일 관계 분석-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사회과교육』42-1, 2003; 설규주, 『세계시민사회의 대두와 다문화주의적 시민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43-4, 2004; 김한중, 『다문화사회의 역사교육-캐나다 BC 주의 경우-』, 『역사교육연구』4 ; 백령, 『다문화교육 맥락에서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미술교육의 접근방법』, 『미술교육학』20, 한국교육대학, 2007; 배은주, 『한국 내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생활에서의 갈등 해결 방안-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9-2, 2006; 정선경, 『지구적 시각에 기초한 세계사 교육에의 접근 방안』, 『역사교육』85 ; 김진호, 『미술교과서에 없는 '다문화교육'』, 『초등 우리교육』, 2006, 3; 김지혜,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함께 진행한 다문화 이해수업』, 『중등 우리교육』 2005; 박남수, 『다문화사회에 있어 시민적 자질의 육성』, 『사회과교육』, 33, 2000; 김왕근, 『호주의 다문화 교육』, 『우리교육』 1995년 1월호 참조.

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전제로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각국 간의 문화교류를 강화하고 다문화 인식을 자연스럽게 배양할 수 있는 교과서 서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고등 국사교과서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연구 성과의 반영이 미진한 것은 주로 한국문화가 지닌 보수적 성향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예컨대, 삼국시대의 다문화 혼용 양상이라든가, 고려시대의 문화 충돌과 접변 양상은 당시의 고려 문화를 국제적 문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이에 대한 이해의 시각이 자국의 문화 전파 역할 등 정도의 편향적 시각에 머물러 있음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³³⁾

이와 함께 새터민 자녀들의 교육과 한국민 자녀들과의 소통을 전제로 한 연구에서는 ‘다름’과 ‘공존’을 주제로 하고 다문화교육을 실천 과제로 설정하는 평화통일 교육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는 제언도 있다.³⁴⁾ 이와 함께 언어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양의 연구 성과가 집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검색에서는 드러나지 않았고, 이미 출간된 서적이 다수 있다.³⁵⁾

국내의 다문화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정책보고서나 연구보고서가 다수 있는데 20여 건이 집계된다.³⁶⁾ 2006년에 있었던 정부의 다문화

33) 전영준, 「고려시대 팔관회의 실행과 국제문화교류」, 『다문화주의의 이론과 실제』,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전상운, 「한국에 있어서의 이슬람문화」, 『한국과학사학회지』14-1, 1992.

34) 윤인진·이진복,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 북한 이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7-1, 2006.

35) 박정은, 『캐나다에 사는 소라엄마의 언어교육 이야기』, 일지사, 2007.

36) 김이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센터리뷰』 가을호, 2006; 김이선, 「국민통합 및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협동연구총서』06-02-07, 한국여성정책개발원, 2006; 문순영,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72-1, 2007; 홍기원, 「다문화사회의 정책과제 방향-문화정책의 역할과 과제」,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집중 논의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출입국 관리나 결혼이민자의 처우 문제 등에 관한 정책보고서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갑주도형**이라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 관련 연구의 경향성은 우선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적 틀의 짜임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둘째 역사적 고증이나 검토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진한 반면, 언어 교육이나 문학, 사회복지 측면에서 진행되는 연구 성과가 눈에 띈다. 이는 근래에 있었던 국제심포지엄 개최에서도 확인된다.³⁷⁾

이와 함께 한국사의 발전과정에 보이는 다문화 관련 연구는 문화사 분야에서의 연구가 특히 주목된다. 교류사나 교역사를 주제로 하면서도, 교류의 내용이나 현상이 국가발전 단계를 이끌어냈음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서역이나 다른 문화권의 문화 전파 또는 문화적 융합이 동일문화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여 눈길을 끈다.³⁸⁾

한국사의 발전 단계에는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참조.

- 37)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문화적 인종적 차별이 없는 다문화 사회-미래사회의 다문화가족』, 한국프레스센터, 2007. 3. 30;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사회의 전문성 강화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2008.04.03~04; 서강대 종교연구소, 『다문화 교육의 토대로서 종교교육과 영성』 국제심포지엄, 서강대학교 다산관 국제회의실, 2008.04.07~09 등에서 연구발표회와 토론이 있었다.
- 38) 무함마드 칸수(정수일), 『新羅·西域交流史』,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2; 존 카터 코벨·김유경, 『한국문화의 뿌리를 찾아』, 학교재, 1999; 윤명철, 『바닷길은 문화의 고속도로였다』, 사계절, 2001; 정수일, 『문명의 루트 실크로드』, 효형출판, 2002; 金昌錫, 『8~10세기 이슬람 제종족의 신라 來往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 연구』 44, 한국고대사학회, 2006; 전덕재, 『한국 고대 서역문화의 수용에 대한 고찰』, 『역사와 경계』 58, 부산경남사학회, 2006.

문화적 접촉과 융합이 필연적이었다.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는 당시의 각 나라들이 무역이나 또는 다른 인식을 통해 주요 대상의 하나로 보기에 충분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때문에 멀리 있었던 이슬람 제 국가들은 물론 동아시아문화권 내의 각국과도 문화적 교류와 전파를 통한 교섭은 다문화적 전통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한 시각의 연구들이 최근 진행되고 있다.³⁹⁾

II. 한국의 다문화 연구와 향후 과제

1. 다문화 연구의 향후 과제

통계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1만 8천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도 초, 이주 노동자의 거주와 1990년대 후반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부터 학령기 아동이 급격히 증가를 볼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현실적 당면 과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을 둔 정책 입안이 우선시 된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거나, 방송과 언론매체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정도로는 한국의 다문화사회 변화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 오히려 이것은 각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배제한

39) 전영준, 『신라사회에 유입된 서역문물과 多文化的 요소의 검토』, 『신라사학보』 15, 신라사학회, 2009; 전영준, 『고려시대 팔관회의 실행과 국제문화교류』, 『다문화주의의 이론과 실제』,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박경하·전영준, 『역사 속의 다문화』, 도서출판 경진, 2010.

채, 정부의 일방적인 통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의 다문화사회 담론이나 이론들에 대해 정확한 개념 규정 없이 다양한 범주나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과 용어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 다문화사회 담론을 구축하는 기초적 문제 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현재의 담론들은 민족·국민·인종과 같은 개념조차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민족’·‘다인종’·‘다문화’사회와 같은 개념을 모호하게 사용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와 다민족사회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인식은 ‘문화’개념의 빈곤과 관련된 대표적인 오해로 볼 수 있다. 현재 통용되는 ‘다문화’ 개념에서 ‘문화’개념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어 다문화사회의 실태나 다문화 정책의 한계와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⁴⁰⁾ 한국의 다문화주의 담론은 1980년대 말 이후 급증한 이주민의 존재가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에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 속에 출현했다. 결혼이민자의 입국이 급증하기 전, 한국 정부의 이주민 정책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력관리 정책에 불과했다. 정부의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정착을 허락하지 않는 교체순환정책을 기조로 삼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정책은 ‘통제와 관리’ 중심이었다.

시민사회 또한 정부의 이주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입국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나 업체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영역으로 이주민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민운동가들 역시 이주민 운동의 상당기간을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급박한 인권침해 사례를 상담

40) 한경구·한건수,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이상과 현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대위원회, 2007, 74쪽.

하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응급조치 위주의 활동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이들이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계기로 한국 사회는 스스로의 문제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갖게 된 것이다.⁴¹⁾ 일부 시민운동단체와 학계에서 시작한 다문화주의 대열에 정부의 일부 부처와 각종 시민단체, 연구자 등이 경쟁적으로 편승하고 합류하는 현상이 급속히 전개된 것은 그 이전의 무관심에 비교하면 매우 괄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역의 이주민 사회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정책 방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역의 시민단체에 의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아울러 정부의 사회경제적 차원의 다문화 ‘지원’정책의 경우 다문화정책의 지향성에 대한 논의를 유보한 채, 사회취약계층의 관점에서 즉각적인 불만요인들에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이고 총체적인 다문화정책의 선언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제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의 이주민이나 소수 인종 및 민족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정책의 적용대상이 범국민적 포괄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를 실천적 차원에서 적용해야 하는 정부의 모든 부처 역시 포괄적으로 관련되었음을 시사한다.

우리가 수립하는 다문화정책의 수혜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교류와 협력, 공존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신이다. 다문화정책을 단순한 이민자 대책이나 소수자의 문제가 국가의 비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내부로부터 비롯된 다문화적

41) 한경구·한건수, 위의 글, 75-76쪽.

관점과 가치를 국제화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으로 끌어 올려나갈 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높여갈 수 있다. 서구와 다른 배경과 동기를 가진 아시아에서 다른 지평과 높이를 가진 다문화정책을 창출하고 실행해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교류와 협력, 공존을 지향하는 국가이미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⁴²⁾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다인종·다민족 사회로의 이행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서구의 다문화사회 담론의 이상적 적용보다는 한국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수준, 즉 이주민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한국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 전략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 과제는 이주민과 한국인을 구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주민들에게는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정책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를 교육하고 한국에서 자립할 수 있는 물질 토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반대로 한국인들에게는 다문화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강력한 교육과 계몽을 실시해야 한다. 다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설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장기 과제는 서구사회의 이상적 다문화 사회론이 한국에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사회적 합의 구축이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은 다문화담론이나 정책을 둘러싼 ‘공공선’의 경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⁴³⁾

42) 홍기원, 앞의 글, 919-921쪽.

43) 한경우·한건수, 앞의 글, 112-113쪽.

2. 다문화교육의 향후 과제

문화교육은 문화 전달이 아니며, 사회화와는 다르다. 사회화는 새 구성원을 그 사회에 입문시키는 방법으로 문화 전달을 행한다. 유년기와 소년기의 초기 사회화, 사춘기 혹은 청년기의 성년식은 문화 전달의 주요 통로이다.

최근에 와서 세계화 교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에 다문화교육은 주로 복수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 반편견 교육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⁴⁴⁾ 때로는 인권교육, 반전평화교육, 생태환경교육 등과 개념적으로 외연을 나누기도 하였다. 이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온 교육과정에도 포함되어 있다. 현 사회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를 세계와의 연결이라는 공동의 주제에서 설정되고 이를 위해 각 교과에서는 세계 시민으로의 성장을 의미하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었다.⁴⁵⁾ 다문화 교육이 단순히 학습자의 성취동기를 유발하지는 않겠지만, 思考의 발달과 같은 성장기의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상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세계와의 소통 과정에 장애를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주요 개념 중에 국가 수준에서 정의되는 요체가 강제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사회 내에 존재하는 소수자에 대한 일방적 동화정책과 같은 다문화사회에서 복수문화교육(ME : multicultural education)⁴⁶⁾은 또 다

44) 조용환, 「다문화 교육의 의미와 과제」, 『다문화사회의 이해』, 동녘, 2008, 226-261쪽.

45)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한국과 세계 간의 소통을 전제로 하는 교육과정 목표를 설정하였다.

46) 조용환, 앞의 글, 2008에서는 미국과 같은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집단을 지배집단의 문화에 동화시키고자 취해왔던 이른바 ‘용광로(melting pot)’ 접근의 한계에

른 문화적 층위를 설정함으로써 학습에 의한 문화습득을 강제하거나, 양적으로 혼합된 문화 속에서 일방적인 교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개념이다. 한편,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국제이해교육(EIU :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⁴⁷⁾은 하나의 문화 단위인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만남의 장’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 직접적인 교류가 미진할 때는 정보 및 자료의 교환, 프로그램의 교환, 협력 활동의 개발 등으로 접근해 왔다.

인종·민족·性 등에 따른 각종 차별을 없앴으로써 사회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제시된 반편견 교육(NBE : non-biased education)⁴⁸⁾은 세계 사조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차이와 차별에 대한 성찰과 대안 제시 과정에서 형성된 개념으로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였다. 아울러 최근 한국의 교육과정에서 유난히 강조되는 개념으로 ‘세계화’ 또는 ‘세계 시민’의 등장이다. 다소 관념적인 표현에서 말하는 소통의 범주에 세계를 포괄하고,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 사회 내부의 복수 문화를 소극적 포용이 아닌 적극적 활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문화복수주의(cultural pluralism)’가 그 철학적 배경이다. 복수문화교육의 전형은 학교 상황에서 소수 집단 학생들을 배려하는 이중언어교육(bilingual educat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가정의 언어와 학교의 언어를 모두 포용하여 숙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취약점이 있다. 하나는 문화를 마치 습득하여 활용하는 일종의 도구적 패키지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문화들 간의 공존 형태를 질적 화합이 아닌 양적 혼합으로 보는 점이다.

47) 국제분쟁을 줄이고 세계평화를 확산시키고자 국가들 간의 상호 이해를 문화와 교육 차원에서 증진한다는 것이 기존 취지다. 유네스코 중심의 국제이해교육은 국가를 문화단위로 삼고, 주로 국가기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조용환, 위의 글, 2008).

48) 미국의 흑백 갈등 해소나 유럽의 소수민족 차별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1970년 대 이후 페미니즘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며 반편견 교육이 활성화되었다. 반편견 교육은 주로 학교에서 사회과 교육이나 특별활동 프로그램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다.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기는 했지만, 문화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소통에 장애가 없는 시민의 성장을 강요한다. 때문에 이는 1990년대 이후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한 무역자유화, 세계시장 활성화, 지구촌 생활세계 구성 등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⁴⁹⁾ 세계의 흐름에 발을 맞추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한국의 현실에서는 필요한 내용이겠지만,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의 제시 없이 교사와 학습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교육과정에는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오히려 교과서 개발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 네 가지 형태의 교육은 사람들의 이주와 교류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야기된 다문화 상황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각각의 배경과 특징, 기여 가능성과 한계점은 서로 다르다. 우리 주변의 다문화 교육 담론들을 살펴보면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하거나, 둘 이상에 걸쳐서 중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다문화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그런 애매모호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때문에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적 행위, 제도, 유산 등을 비판적 성찰의 소재로 삼아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계를 추구하는 일이다. 다양한 문화를 풍부하게 접촉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현대사회의 생활세계 자체가 다문화 상황임을 인식하고 생존과 실존의 방식에 맞게 재구성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즉 외부와 내부 양자는 별개의 것이 아닌 통합적인 체제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49) 세계화 교육(GE : globalization education)은 세계화 교육을 세계화 현상을 이 해시키는 방향으로, 다른 한편 세계화에 부합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 초국적 다중 혹은 세계시민의 질서를 형성한다는 세계화 교육의 논리는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이다(조용환, 위의 글, 2008).

맺음말

다문화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국내 학계의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그간의 연구 성과에서 확인되는 것은 한국정부의 실질적인 동화정책을 다문화 정책이라 이름 붙이고, 관 주도형의 다문화 정책이나 중앙의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지방자치체의 시민단체 의존형 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조의 이면에는 다문화주의의 세계적 유행과 국제 사회에서의 이미지 제고를 고려한 측면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에 정작 다문화의 주체인 소수자들의 목소리는 담겨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결국 누구를 위한 다문화주의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기존 한국사회의 도농 간, 계층 간 차이·차별 등과 같은 모순을 은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이것은 동화정책 내지 사회통합 정책이 아닌 소수자의 문화 권리를 인정하고 상호 공존하는 다문화주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함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망한다. 때문에 이를 위한 전제로서 단일민족 신화를 붕괴시키고 다양한 인종 민족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는 의문을 풀어야 할 것이다.

문화의 다원성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내포한 보편적 규범과 기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의 사회를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단

순히 세계 사조의 흐름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물과 기름 같은 서로 다른 차원의 정책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화 전통의 특성을 보다 심화하여 한국사 상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밝히는 과정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즉,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 관련 연구나 실천 단계는 현실성이 담보되는 사회복지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탄탄한 이론적 기반 없는 사상누각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즉,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 수용되고 적용된 다양한 문화적 층위를 밝히고 선명히 하는 작업이 우선된다고 볼 수 있고, 단일 민족이라는 정체성 아래 가려져 있는 성별·계층·주변·집단 등의 권력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개방화, 세계화시대의 과제이다.

주제어 :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다문화사회, 사회복지측면, 문화적 층위, 민족성, 개방화시대, 세계화시대

(논문투고: 2011.5.16/ 논문심사완료: 2011.6.2/ 논문게재 확정일: 2011.6.20)

참고문헌

- James A. Banks, 모경환 외 공역,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2008.
- Will Kymlicka, 장동진 외,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공동체주의, 시민권이론,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동명사, 2006.
- 강진구, 『한국문학의 쟁점들-탈식민, 역사, 디아스포라』, 제이앤씨, 2007.
- 강진구, 「다문화교육이 대학생들의 다문화인식에 끼친 영향」, 『다문화연구』창간호, 중앙대학교, 2008.
- 강진구, 「수기(手記)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혼혈인 인식」, 『우리文學研究』26, 우리문학회, 2009.
- 공종구 외, 『경계인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근대 풍경』, 도서출판 선인, 2005.
- 공종구, 「강요된 디아스포라-손창섭의 『유맹』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2, 2006.
- 곽정래 · 박승관, 「새터민의 매스미디어 이용과 사회적응」, 『한국언론학보』50-6, 2006.
- 金昌錫, 「8~10세기 이슬람 제종족의 신라 來往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44, 한국고대사학회, 2006.
- 김경국 외, 「중국해외이민의 제 명칭 분석 연구」, 중국인문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문, 2005.
- 김경학 외, 『귀한의 신화-해외 인도인의 이주와 정착』, 경인문화사,

2005.

- 김경학 외, 『글로벌시대의 인도인 디아스포라』, 경인문화사, 2007.
- 김경학 외, 『인도인 디아스포라-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 경인문화사, 2006.
- 김경학, 『인도인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 『문화역사지리』19-3, 2007.
- 김상률, 『차이를 넘어서』, 숙명여대 출판국, 2005.
- 김선미, 『중등사회과교과에 나타난 한·중·일 관계 분석-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사회과교육』42-1, 2003.
- 김성곤, 『다문화시대의 한국인』, 열음사, 2002.
- 김승일, 사할린 한인 미귀환 문제의 역사적 접근과 제언』, 『한국근현대사연구』38, 2006.
- 김영란, 『다문화 사회복지실천의 한국적 함의』, 『다문화콘텐츠연구』4(통권 9),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하반기.
- 김왕근, 『호주의 다문화 교육』, 『우리교육』 1995년 1월호 참조.
- 김이선,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1 :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김정현 외, 『러시아에서 고려인이 생산한 한글정보자원에 관한 연구 : 1900-1937』,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37-3, 2006.
- 김지혜,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함께 진행한 다문화 이해수업』, 『중등우리교육』 2005.
- 김진호, 『미술교과서에 없는 ‘다문화교육’』, 『초등 우리교육』, 2006, 3.
- 김한중, 『다문화사회의 역사교육-캐나다 BC 주의 경우-』, 『역사교육연구』 4.

- 김현덕,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비교연구-미국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17-4, 2007.
- 김휘택, 「롤랑 바르트의 사상적 여정과 다문화」, 『다문화연구』창간호, 중앙대학교, 2008.
- 김휘택, 「다문화시대의 사회 계층 구조 변화」, 『다문화콘텐츠연구』 4 (통권 9),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하반기.
-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다문화의 이해』, 경진출판사, 2009.
-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다문화주의의 이론과 실제』, 경진출판사, 2010.
- 레이 초우, 장수현 외,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이산, 2005.
- 로버트 프로서, 정지현, 『프랑스: 블루 화이트 레드의 다문화주의(세계의 나라2)』, 주니어 김영사, 2008.
- 류찬열, 「다문화시대와 현대사의 새로운 가능성」, 『국제어문』44, 2008.
- 류찬열, 「다문화 동화의 현황과 전망」, 『語文論集』40, 중앙어문학회, 2009.
-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윤진,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2002.
- 박경하·이찬욱 외, 『한국사회의 소수자들 : 결혼이민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도서출판 경진. 2009
- 박경하·전영준, 『역사 속의 다문화』, 도서출판 경진, 2010.
- 박경환, 「디아스포라 주체의 비판적 위치성과 민족 서사의 해체」, 『문화역사지리』19-3, 2007.
- 박남수, 「다문화사회에 있어 시민적 자질의 육성」, 『사회과교육』, 33, 2000.
- 박노자, 『하얀 가면의 제국』, 한겨레신문사, 2005.

- 박명선, 「독일 이민법과 통합정책의 외국인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학』41-2, 2007.
- 박명진 외, 『편견과 무지의 경계선 읽기』, 보고서, 2007.
- 박용희 외, 『다민족·다인종 국가의 역사인식』, 동북아역사재단, 2009
- 박재영, 「유럽 다문화사회의 문화충돌」, 『다문화연구』창간호, 중앙대학교, 2008.
- 박정은, 『캐나다에 사는 소라 엄마의 언어교육 이야기』, 일지사, 2007.
- 배은주, 「한국 내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생활에서의 갈등 해결 방안-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9-2, 2006.
- 백령, 「다문화교육 맥락에서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미술교육의 접근 방법」, 『미술교육학』20, 한국교육대학, 2007.
- 변화영, 「문학교육과 디아스포라」,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2, 2006.
- 변화영, 「재일한국인 유미리의 소설 연구」, 『한국문학논총』45, 2007.
- 서강대 종교연구소, 「다문화 교육의 토대로서 종교교육과 영성」 국제 심포지엄, 서강대학교 다산관 국제회의실, 2008.04.07~09.
- 설규주, 「세계시민사회의 대두와 다문화주의적 시민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43-4, 2004.
- 염철현, 「미국의 적극적 차별수정정책(Affirmative Action)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16-4, 2006.
-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 2007.
- 오운호, 「『중국인 거리』에 나타난 이주의 상상력」, 『어문연구』35-4, 2007.
- 유네스코 아시아 편, 『맛있는 국제이해교육-다문화 시대의 음식과 세계화』, 일조각, 2007.
- 윤명철, 『바닷길은 문화의 고속도로였다』, 사계절, 2001.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 출판부, 2005.
- 윤인진 · 이진복,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북한 이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7-1, 2006.
- 윤인진, 「북한 이주민의 건강과 경제적응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21, 2007.
- 윤인진, 「다문화사회에서 사회적 성원권의 再정의-민족, 국민, 주민 개념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의 담론과 성찰』, 전국학술대회 자료집(2011, 5, 13), 중앙대학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 윤재희 · 유향선, 「한 걸음 더 나아가기-영·유아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다문화연구』창간호, 중앙대학교, 2008.
- 이경원, 「오리엔탈리즘, 시오니즘, 테러리즘; 에드워드 사이드의 『팔레스타인 문제』」, 『비평과 이론』11-1, 2006.
- 이길용, 「일본어 언어문화의 다양성 인지와 실현」, 『다문화연구』창간호, 중앙대학교, 2008.
- 이명현, 「타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語文論集』40, 중앙어문학회, 2009.
- 이명현, 「영화 <구미호 가족>에 재현된 구미호와 주체와 타자의 문제」, 『다문화콘텐츠연구』10집,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1, 4.
- 이명현, 「다문화시대 이물교혼담의 해석과 스토리텔링의 방향」, 『다문화주의의 담론과 성찰』, 전국학술대회 자료집(2011, 5, 13), 중앙대학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 이산호, 「프랑스의 문화다양성과 사회통합정책」, 『다문화연구』창간호, 중앙대학교, 2008.
- 이성언, 『법제지원방안 연구 다문화 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법제연구원, 2006.

-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국제성별분업, 국제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38-2, 2004.
- 이순태,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 이은숙, 『한국사회와 다문화가족』, 양서원, 2007.
- 이재봉, 『지역문학사 서술의 가능성과 방향』, 『국어국문학』44, 2006.
- 이종윤, 『한국의 다문화정책 관련법에 관한 일고찰』, 『다문화콘텐츠 연구』 4(통권 9),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하반기.
- 이지영, 『다문화 교육을 통한 세계사학습의 현장사례연구』, 『사회과 교육』41-3, 2002.
- 이찬 외, 『새터민의 기초직업능력 진단』,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3, 2007.
- 이호경,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다문화콘텐츠연구』 4(통권 9),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하반기.
- 자연교육연구소, 『세계를 이해하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제이솔, 2007.
- 장덕호, 『최근의 국제 관계 변화와 국제교육정책 형성을 위한 담론』, 『비교교육연구』17-1, 2007.
- 장사선, 『재일 한민족 문학에 나타난 내셔널리즘』, 『한국현대문학연구』21, 2007.
- 전덕재, 『한국 고대 서역문화의 수용에 대한 고찰』, 『역사와 경계』 58, 부산경남사학회, 2006.
- 전영준, 『신라사회에 유입된 서역문물과 多文化的 요소의 검토』, 『신라사학보』15, 신라사학회, 2009.

- 전영준, 「현행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고·중세시기 문화교류 내용 서술과 분석」, 『동국사학』48, 동국사학회, 2010.
- 전영준, 「고려시대 팔관회의 실행과 국제문화교류」, 『다문화콘텐츠연구』 3(통권 8),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 전영준, 「11~12세기 전후 麗·宋 양국의 문화인식과 『高麗圖經』」, 『다문화콘텐츠연구』10집, 2011.
- 전영평 외, 『한국의 소수자 정책-담론과 사례』, 서울대출판부, 2010.
- 정선경, 「지구적 시각에 기초한 세계사 교육에의 접근 방안」, 『역사교육』 85.
- 정수일, 『新羅·西域交流史』,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2.
- 정수일, 『문명의 루트 실크로드』, 효형출판, 2002.
- 조용환, 「북한이탈주민의 정보 빈곤 해소를 위한 정보서비스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37-3, 2006.
- 조용환,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40-3, 한국문헌정보학회, 2006.
- 조용환, 「이주민을 위한 국내 도서관 서비스의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38-2, 2007.
- 조용환, 「다문화 교육의 의미와 과제」, 『다문화사회의 이해』, 동녘, 2008.
- 존 카터 코벨·김유경, 『한국문화의 뿌리를 찾아』, 학고재, 1999.
- 최성환,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전망」, 『철학탐구』24, 중앙철학연구소, 2008.
- 최성환, 「다문화주의와 인권의 문제-문화상대주의와 보편주의의 경계에서」, 『다문화주의의 담론과 성찰』,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11, 5, 13), 중앙대학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 최혜양, 「캐나다의 이민과 다문화주의 이해」, 『다문화콘텐츠연구』 4 (통권 9),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하반기.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문화적 인종적 차별이 없는 다문화 사회-미래사회의 다문화가족」, 한국프레스센터, 2007. 3. 30.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사회의 전문성 강화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2008.04.03~04.
- 한경구·한건수,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이상과 현실」,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대위원회, 2007.
- 허석, 「해외이주 일본인들의 디아스포라적 특성에 대한 연구」, 『일본어문학』31, 2006.
- 홍기원,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관광정책연구원, 2006.
- 홍기원, 「다문화현상에 대한 행정적 대응의 변화과정과 그 함축」, 『다문화주의의 담론과 성찰』, 전국학술대회 자료집(2011, 5, 13), 중앙대학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 黃善翌, 「해방 후 대만지역 한인사회의 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34, 2005.
- 황정미,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A Study on Research Status and Task on Multi-Culturalism in Korean Society

Park, Kyoung-Ha

Multi-culturalism is the idea confronted to integration policies of the nation-state based on the assimilation claiming one culture, language, and nation. This is a public declaration presupposing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management model on cultural diversity. In only cultural diversity, human rights and freedoms of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can increase, creative energy can display, and confirming and continuing philosophy and public norms can be led to truly social integration.

Multi-culturalism can be deployed as very flexible and broad interpretation in terms of terms containing a variety of responses on the multi-cultural situations. For these reasons, the research on multi-culturalism becomes often a prerequisite theoretical acceptance the results of a case in most foreign countries. And based on this, because multi-cultural studies in Korea society are making progress, theoretical research has gone into a full-fledged orbit than in the past. In reality, of course, the quest for multi-cultural education and multi-cultural society is still low, however also, it will be carried out intensive research in academia. Underlying this view, by more intensify a variety of cultural

characteristics the Korea society today embracing, it is because the judge they will proceed the process investigate and enunciate causes in the history of Korea. Overall, tendencies on Korea's multi-culturalism or multi-cultural research are firstly based on a theoretical framework centering the first overseas cases, and second, specific research on historical review or investigation are trifle, but continue, and products of research accumulated in terms of language education, literature, social welfare are the most prominent.

Research and practical steps on related to multi-culturalism in current Korea society has been emphasized as social welfare aspects backed up in the reality. Because of this reason, multi-cultural society of Korea might be progressed without a solid theoretical foundation.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day, because of the reason, because it is first works lightening and enunciating a variety of cultural layers accepted and applied in Korea society that you can see the work first, how to solve issues of power such as gender, class, surrounding, and group and obscured under a single national identity? It is urgent challenge needed in the liberalization and globalization era.

Key Words : Multi-Culturalism, Assimilation,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Welfare Aspects, Cultural Layers, National Identity, Liberalization Era, Globalization Era.